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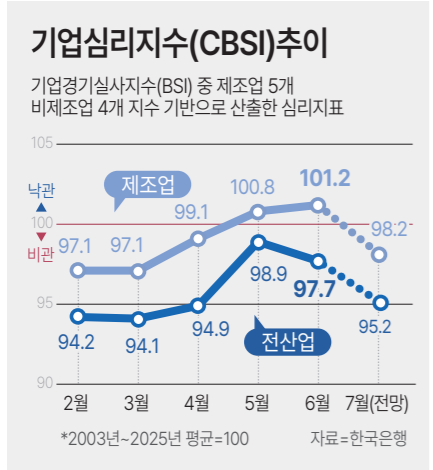


# 수출 '떨떨' 내수 '꽝꽝'... 경제 양극화

기업 체감경기가 한 달 만에 하락  
6월 CBSI 1.2p 떨어져 97.7 기록  
반도체·車 등 일부 업종만 호조  
여가·운수창고업 등 침체의 늪  
7월도 화학물질·장비업 '흐림'



**얼어붙은 골목상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가가 민간 소비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업소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한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며 거시경제 지표는 온기를 띠고 있으나,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골목상권은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박미나 기자



기업 체감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약해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이 제조업 심리를 떠받쳤지만 비제조업은 매출과 채산성 체감이 함께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6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7.7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5.2로 전월 조사치보다 2.4p 낮아졌다. CBSI는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제조업 CBSI는 101.2로 전월보다 0.4p 올

랐다. 자금사정과 신규수주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코크스, 자동차 등이 개선됐다. 한은은 전자·영상·통신장비에 대해 반도체 및 부품업체 실적 호조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상승세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수출기업 CBSI는 106.4로 전월보다 1.1p 올랐지만 내수기업은 98.0으로 0.4p 낮아졌다. 수출 호조와 내수 냉기가 같은 제조업 안에서도 엇갈린 셈이다. 비제조업은 매출과 채산성 체감이 함께 약해졌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95.4로 전

월보다 2.1p 하락했다. 한은은 매출과 채산성이 비제조업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플랜트와 통신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가 좋고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업황과 채산성이 악화됐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전월 연휴 효과가 빠진 데다 시설유지비 등 관리비용이 늘면서 매출과 채산성이 낮아졌다. 운수창고업도 국내 운수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이나 매출이 나빠지고 운영비용이 늘며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제조업 상승세가 일부 업종에 그친 가운

데 비용 변수도 남아 있었다. 경영여로서 함에서는 환율 부담이 전월보다 커졌다. 제조업에서 환율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중은 5월 5.0%에서 6월 7.8%로 올랐다. 비제조업도 3.7%에서 5.7%로 상승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을 경영여로서 꼽은 비중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낮아졌다. 제조업은 32.8%에서 27.7%로, 비제조업은 18.0%에서 15.1%로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도 어두워졌다. 7월 제조업 전망 CBSI는 98.2로 전월 조사치보다 2.1p 하락했다. 비제조업 전망 CBSI는 93.2로 2.7p 낮아졌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 속 터지는 한국 축구 조 3위 '또 경우의 수'

1승 제물 남아공에 0-1 충격패  
탈락 위기... 다른 조 상황 봐야

대한민국이 남아공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A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5일(한국 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배했다. 1승 2패로 승점 3점을 획득한 대표팀은 멕시코(3승 승점 9), 남아공(1승 1무 1패 승점 4)에 이어 A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12면〉** 전날 변화를 예고했던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LAFC)과 이재성(마인츠)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과격적인 라인업을 꺼냈다. 손흥민 대신 체코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오현규(베식타시)가 최전방에 서고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뒤를 받쳤다. 주장 완장은 김민재(원전)가 넘겨받았다. 전반전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팀은 남아공이었다. 슈팅 수에서 4-9로 밀린 한국은 남아공에게 유효슈팅 3개를 허용했다. 대표팀은 유효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 이태석(빈), 백승호(버밍엄시티)를 빼고 손흥민, 엔스 카스트로프(빈헨

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를 투입했다. 손흥민과 엔스의 투입으로 공격에 활로가 보이는 듯 했지만 오히려 후반 18분 다펠로 마세코(AEL 리마솔)에게 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조규성(미트윌란)까지 후반 29분에 투입해 동점골을 노려봤지만 결국 득점없이 경기가 종료되며 대한민국은 최악체라고 평가받던 남아공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앞으로 한국은 조 3위간 경쟁을 지켜 봐야 한다. 이번 월드컵은 조 3위 12팀 중 8팀이 32강 티켓을 받는다. 이날까지 12개 조 3위 중 한국은 4번째다. 앞서 경기를 치른 B조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조 3위, 승점 4점을 기록하며 한국보다 앞서고 C조에서는 스코틀랜드가 한국과 같은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이 -3이기 때문에 한국(-1)이 앞섰다. 만약 조 3위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독일(E조 1위) 혹은 G조 1위와 32강 맞대결을 펼친다. G조는 현재 이집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란과 벨기에가 추격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치뤄진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는 멕시코가 3-0으로 완승을 거두며 멕시코가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했다. 체코는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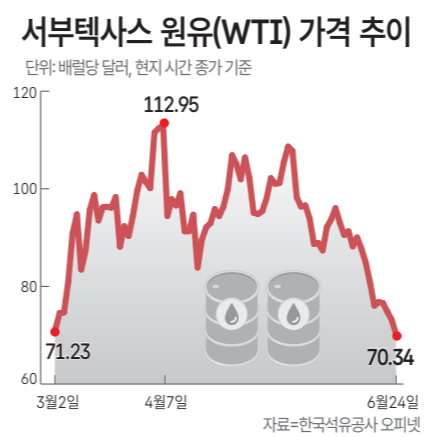
# 국제유가 급락... 전쟁 이후 최저

두바이유 배럴당 70弗 무너져  
호르무즈 수송 물동량 풀린 덕  
국내 휘발유 2000원 붕괴 임박

국제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하며 전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정상화 기대가 커지

면서 유가는 약 4~6% 하락했다. 24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33% 하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다. 두바이유는 전 거래일 71.77달러에서 67.29달러로 6.24% 급락했다. 모두 이란전

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에 따라 결점 해역에 묶여 있던 원유 물량이 다시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하락 압력을 받았다.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 중 2척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량은 대부분 8월 초까지 목적으로 도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 유예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오만의 안전 통항 지원 조치, 레바논 지역 긴장 완화 등도 공급 정상화 기대를 키웠다. 씨티그룹은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 6~12개월 동안 브렌트유가 배럴당 60~6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6.8원, 경유는 1998.7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휘발유 가격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가를 끌어올렸던 호르무즈 해협은 빠르게 안정화 단계를 밟고 있다.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가운데, 24일(현지 시간) 기준 발이 묶였던 유조선 26척 중 8척이 출항하고 카타르 LNG선도 9척으로 늘며 통항 정상화 기대를 키웠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 오직 '부의 지도' 팬클럽에서만 허락된 명사와의 프라이빗한 시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의 만남,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대면 세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명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질문에 직접 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부의 지도